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17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시 117:1-2 ……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 39장(새 39장) ……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21번(새 39번) ……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주를 경배합니다. 저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한 영혼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정해졌사오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십자가의 길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열매를 보고 먹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구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옛사람은 죽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증거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백성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 이사야 58:1-12 ……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 이송원 목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경건

봉 헌(offering) …… 341장(새 312장) ……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 인도자

찬 송(Hymn) …… 518장(새 463장) …… 다함께

축도(Benediction) ……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오늘 친교 후 12:30분에 소망속 모임이 있습니다.
   (속장 : 이춘희, 속원 : 기길숙, 김희원/진판자 박준영/윤병옥, 신숙경, 심금자, 이정숙, 이화자, 임숙재, 전영숙, 최은진, 허영희, 홍혜영)
3. 내년도 달력 신청을 위한 샘플이 게시판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종류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말씀묵상집 10월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5. 조동천선교사님께서 한마당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캄보디아 조동천선교사님)

〈이 달의 속회 적용점〉 고린도전서 9:19-23

나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고 왜 그런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나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면 철저히 그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과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며 비로소 막혔던 관계가 풀어집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봅시다.

〈말씀묵상〉 이사야서 58:1-9(상)

1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 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2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3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5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9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1.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 보기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았으며 금식하였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 나는 지금 진정 하나님을 알아 그분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찾고 있습니까?

2.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모습이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6-9절) 나의 경건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성도들이 가장 속기 쉬운 것 중 하나는, 자신이 경건생활(말씀묵상, 기도, 금식 등)을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드리는 기도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없거나 더디다고 생각되면 자신을 돌아보기 보다는 "나는 할 도리 다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식으로 대하십니까?"라고 도리어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경건조차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방도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딤전6:5).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른 채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은 그저 경건의 모양만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생활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어쩌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되짚고 확인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